

# 서해안 물류산업 중심지 당진

강 욱 / 자유기고가

당진군(唐津郡)은 충청남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400m의 낮은 구릉지대를 형성하면서 비교적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다. 군의 중앙에는 아미산, 다불산, 이배산이 있고 남북으로 분수령을 이루면서 야산과 평야지대를 이룬다. 특히 합덕읍과 우강면에 걸친 소들강문 평야는 충남 제일의 곡창지대로 예당(禮唐) 평야의 연장선에 있으며 유명한 당진 쌀을 생산하고 있다. 당진은 옛부터 중부지방 최대의 조창(漕倉)이 있던 곳으로 우강면에 있던 범근내포가 그 자리이다.

당진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 졌다. 최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당진은 첨단기업 유치와 개발을 통해 국제 관광도시, 세계 물류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당진항을 개발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물류 유통시설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 충남 북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농업, 공업, 관광, 항만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진 하면 삼교천 방조제가 유명한데 1979년에 완공되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신평면에 내려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다. 여기서 그는 공무원과 주민들 앞에서 이 방조제가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해 연설을 하고 한번 걸어 본 뒤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삽교천에 한 그의 연설은 마지막 연설이 되고 말았다.

그 뒤로 삽교천은 더욱 유명해졌고 국민관광지로 조성되어 각광받고 있다. 총 저수량 8,400만톤의 삽교호가 만들어짐에 따라 반만년간 상습 한해에 시달리던 것이 해결되었다. 농업용수는 당진군을 비롯해 아산, 홍성, 예산군 일부 등 4개 시·군 25개 읍·면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1984년에 준공된 대호방조제는 길이 7,808m로 당진·서산시를 연결하면서 광대한 농경지를 조성하였다.

당진은 예부터 인심이 순후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났다. 그래서 외지에서 발령받고 온 공무원들이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곳”으로도 유명하였다. 그 이유는 발령장을 받고 궁벽한 당진으로 오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까하고 울고 왔다가 어느덧 몇 년이 지나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을 때는 그동안 쌓인 깊은 인심과 정에 당진을 떠나기가 못

내 아쉬워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간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현재 당진군은 2읍 10면의 행정구역에 13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 농업과 어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면서 낙후되었던 당진군이었으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당진항을 중심으로 석문 국가산업단지, 부곡공단 등이 조성되면서 현재의 당진은 예전과는 달리 새롭게 변모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당진의 문화유산으로 보물 제987호로 지정된 신암사 금동불좌상이 유명하다. 아산에서 합덕을 지나 당진읍으로 가다가 처음 나오는 시가지가 송악면이다. 신암사 금동불좌상은 송악면 가교리 신암사에 있는 불상으로 크기 88cm, 머리 높이 23cm, 무릎 너비 60cm이다.

이 불상은 고려 충숙왕 때 능성 구씨의 4대 손인 구예가문의 원찰로 창건한 신암사의 주존불이다. 금동불좌상의 전체적인 모습은 서산시 장곡사에 있는 불상과 비슷하지만 그 보다는 좀더 당당하고 양감이 있다. 얼굴 또한 장곡사 불상과 흡사하지만 빚어놓은 듯한 장곡사 불상과 달리 온화하고 격의 없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

당진읍에서 서산으로 가다가 조금 못 미친 곳에는 정미면이 있다. 이곳에 보물 제100호로 지정된 안국사지 석불입상이 있다.

이 불상은 고려 후기의 삼존불상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본존의 높이가 4.91m로 머리 위에 큰 직사각형의 갓을 썼으며 몸체는 방주형이다. 얼굴은 넓적하고 눈과 눈썹은 길게 그어져 있다. 코와 입은 작으며 괴이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귀는 넓고 목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양쪽으로 두개의 보살상이 입체감 있게 조각되어 있는데 왼쪽 보살상은 머리가 절단되어 형태를 알 수가 없다.

당진읍에서 국도를 따라 합덕읍을 향해 버스로 20분쯤 가면 가지시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른다. 신암사가 있는 송악면에 속해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곳 가지시에서는 전통적으로 거대한 줄다리기 행사가 벌어진다. ‘틀무시’ 또는 ‘틀뭇’이라 부르는 이 줄다리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규모는 길이 200m, 지름 1m로 벗짚만 수만 뭇이 든다.

가지시의 줄다리기는 예부터 이곳 지방의 풍수지리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조선 시대 선조 때 당진 지방은 아산만이 터져서 하룻밤 사이에 물이 넘실거리 17개면 가운데 5개면이 바다에 매몰되고 돌림병까지 돌아 인심이 흉흉했다고 한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풍수지리학자 토정 이지함이 이곳의 지형은 옥녀가 베틀을 놓고 베를 짜는 형상

이기 때문에 윤년마다 지역 주민들이 극진한 정성으로 줄을 당겨야 모든 재난이 물러간다고 하였다. 즉 베를 짜서 마전(피륙을 바라는 일)을 할 때는, 짠 베를 양쪽에서 마주 잡아 당겨야 하므로 이것을 줄다리기에 비유했다.

기지시리를 중심으로 하여 시작된 이 줄다리기는 이제 당진군 전체의 민속축제가 되었다. 윤달이 든 해의 삼월 말에서 사월 초까지 사이에 적당한 날을 정해서 국수봉이라는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 제사를 먼저 드린 후 줄다리기 행사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부녀자들이 줄을 당겼다가 점차 남자들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도를 경계로 남쪽과 북쪽으로 편을 가른 후 수천명이 달려 붙어 신호에 맞추어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이 줄다리기에서는 이기는 쪽은 풍년이 들고 지는 쪽은 흉년이 든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와 서로 이기려고 애쓴다.

당진군은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과 함께 천주교가 가장 먼저 전파된 곳이다. 1784년 예산 사람인 이단원의 포교로 이 지역에 천주교가 들어왔고 우강면 송산리의 솔피 마을에 살던 김진후도 그때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김진후는 1814년 ‘신유박해’때 순교했고 그의 증손자가 바로 유명한 김대건(1821~1846) 신부이다.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은 대대로 신



양심이 굳은 집안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에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경기도 용인군의 깊은 산골에 있는 골배 마을로 이사해 갔다. 그는 거기서 어린시절을 보내며 신앙을 닦다가 1836년 여름에 한국에 와있던 프랑스 신부 모방한테 신학생으로 뽑혀 마카오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김대건은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에 능통한 어학자로 한국의 근대화에 앞장선 선구자였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김대건은 1846년 스물다섯살의 젊은 나이로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지금도 소나무가 유난히 많이 자라는 성지(聖地) 솔피마을에는 그의 동상과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한국의 베들레헴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연중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당진은 농촌 계몽소설로 유명한 '상록수'의 작가 심훈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기지시리가 있고 한진항이 있는 송악면 부곡리가 그의 고향으로 이곳에서 마지막 소설인 '상록수'를 집필했다. 심훈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며 '동방의 애인', '불사조', '직녀성' 등의 연재소설을 쓰다가 고향에 내려와 '필경사'란 집을 짓고 '상록수'의 집필에 들어갔다.

이 소설의 무대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샘골마을로 농촌운동을 하다 죽은 실존 인

물 최영신의 얘기를 그렸는데, 소설 속에서는 채영신으로 나오고 있다. '상록수'는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현상 모집에서 당선작으로 뽑혔고 부곡리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다. 심훈은 여기서 탄 상금 오백원으로 가난한 농민 자녀들의 무상 교육을 위해 상록학원을 세웠으며 이는 지금 송악면에 있는 상록초등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민족혼 같은 것을 몽클하게 느낄 수 있는 소설 '상록수'는 대중들에게 널리 읽혀졌으며 1960년대 최은희, 신영균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크게 히트했다. 심훈은 장티푸스에 걸려 앓다가 서른다섯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 아쉬움을 더했다. 1976년 당진읍 남산에는 그의 기념시비 상록탑이 건립되었고 애국시 '그 날이 오면' 전문이 조각되어 있다. 또한 매년 가을에는 지역축제로 '상록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당진군의 관광지로는 삼교호 국민관광지가 널리 알려져 있다. 담수호인 삼교호와 제방 밖의 서해 아산만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유람선이 왕래하며 각종 위락시설이 갖춰져 있다. 석문면 교로리의 왜목마을은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해뜨고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동해안의 정동진과 같이 일출 장면을 보기 위해 매년 1월 1일에는 1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경기도 평택과 연결되고 있는 7,310m의 서해대교도 당진의 관문으로 유명해졌다. 행담도 휴게소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밖에도 당진에는 난지도 해수욕장, 도비도 해양체험관, 함상공원, 아미산 삼림욕장 등 서해안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한 관광지가 있다.

이 지역의 별미 음식으로는 면천 두견주가 유명하다. 면천면 성상리 박승규씨가 기능 보유자로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국 각지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술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이 중병으로 고생할 때 그의 딸이 아미산에 올라가 백일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날 현몽하기를 아미산의 진

달래꽃을 따다가 안샘물로 술을 빚어 100일 지난 뒤 아버지께 드리라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딸은 두견주를 빚어 아버지께 드려 병이 완치됐다고 한다.

당진하면 쌀을 빼놓을 수 없다. 서해안의 넓은 평야지대로 일조량이 많고 해풍의 영향으로 생육기간이 길어 쌀 재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해나루 쌀’은 당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완벽한 수리시설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이 쌀은 병충해가 적고 벼 알이 알차 밥을 지으면 퍼짐성이 좋고 찰기가 있다. 당진군에서는 ‘해나루 쌀’을 최고의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해 1등급만을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다. 🍚

